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를 지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항공권 발권·입국·입국 이후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 '3단계 입국제한'

건강상태 등 허위진술엔 강제되거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양사 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광(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되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4일부터는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앞으로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 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세경 기자

# 접촉자·有증상자 기준 모호 정부, 과감한 대응지침 논란

일상·밀접접촉자 모두 '자가격리' 유증상 모든 입국자 '검사대상' '접촉자 범위' 의견 모으는 중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과감한 대응 지침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4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을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모두로 넓히고, 검사 대상인 유증상자 역시 중국 이외 입국자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접촉자와 유증상자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범위는 넓어지고 기준은 모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확진자와의 일상접촉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같은 비행기나,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우한패션타운과 같은 넓은 공간에 있는 경우에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동안 일상접촉자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았는데 이를 밀접접촉자와 하나로 통합해서 보수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일상접촉자로 구분된 분들도 모두 자가격리를 하는 소급적용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접촉자의 분류를 확진자의 증상 발현 이전으로 할지도 중요한 이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달 29일 확진자의 하루 전부터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접촉자의 정의와 조사 범위를 확진자 증상 발현일 전후에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WHO의 가이드라인은 보편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검토해 지침 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증상자의 검사 범위도 애매한 부분이다. 확진자 중에선 발열과 폐렴 증세가 모두 나타난 사람도 있었지만, 인후통이나 두통에 그치는 사례도 나타

났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보급되는 진단 시약이 민간으로 확대된다고해도 PCR 장비와 인력, 시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원하는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며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의심할 만한 역학적인 그런 소견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지침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무증상자 감염 가능성 여부도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환자들 가운데 폐렴이나 호흡기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무증상 감염" 가능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전문가와 함께 확진된 사례를 바탕으로 임상적인 특징을 좀 정리해서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입국 제한 지역의 확대도 여전히 관심사다.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으로만 한정할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국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 '코로나 先반영... 中 증시 저가매수 유입'

>> 1면 '中 증시 강타, 7.7%...'서 계속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1.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 증시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낙폭을 줄여나갔다. 장 중 한 때 2100선이 붕괴되기도 했으나 중국 증시의 하락폭이 예견된 수준이라는 안도감에 낙폭을 축소하며 210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 거래일보다

0.13포인트(0.01%) 내린 2118.88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전날보다 4.37포인트(0.68%) 오른 646.85에 장을 마쳤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과 기관이 각각 1539억원, 745억원 씩 팔아 매수세를 보였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주가 하락과 신종코로나 우려 등에 지수가 하락 출발한 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됐다"며 "연휴 이후 처음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지수에 이미 이런 우려가 선반영돼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저가매수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손양지 기자 sonumj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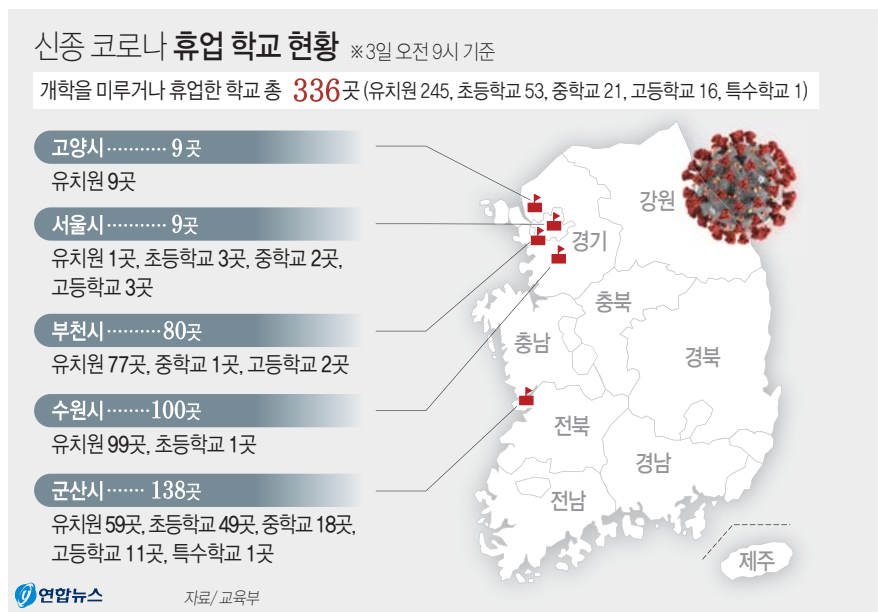
## 유·초·중·고 336곳 휴업·개학연기

교육부, 대학 개강연기 권고 검토 수원·부천 총 189곳으로 가장 많아 中 유학생 27명·한국학생 55명 등 후베이성 방문자 112명 '자가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여파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336곳이 개학연기나 휴업에 돌입했다. 대학의 경우 신종코로나 발원지를 방문한 인원이 112명 이상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신종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대학 개강 연기를 권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3일 교육부는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나온 수원과 부천 유·초·중·고는 휴업을 명령했고, 고양은 휴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로 인해 국내 유·초·중·고 336곳이 휴업이나 개학연기를 했다. 당초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484곳이 휴업했다고 발표했으나, 5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30분께 휴업을 권고한 경기 고양 유치원 157교 중 실제 9교가 휴업했다고 정정했다.

문을 닫은 학교는 유치원이 245곳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53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6곳 등이다. 여기에는 지난 2일 이전에 2019학년도 학사일정이 종료된 유치원 154곳은 제외됐다. 경기도 수원과 부천, 고양은 휴업명령이 시행돼 휴업이나 개학연기가 189곳



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 99곳, 부천 77곳, 전북 군산 59곳 순으로 유치원 휴업이 많다.

교육기관 자가격리자는 2일 오후 3시 기준 학생 11명, 교직원 10명 등 총 21명이다. 여기에는 보건당국에 의한 시설격리자 4명(확진자 자녀 2명, 확진자와 버스 동승 1명, 중국 엔타이 방문 유증상 1명)이 포함됐다.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중국 후베이 지역 방문한 학생·교직원으로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자택에 머무르는 인원이다. 교육기관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지난 1월30일 기준 5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1월31일 23명, 2월1일 이후 21명으로 낮아졌

다. 자가격리 14일 경과 후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 인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경우 자체조사를 통해 중국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을 방문하고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은 총 112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유학생 27명과 한국학생 55명, 교직원 9명 등 91명이 우한시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했고, 우한시 외 후베이성 방문자는 중국 유학생 16명, 한국학생 1명, 교직원 4명 등 21명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242개 대학 중 13.3%는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제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재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hys@

社告

### '한국의 헬렌 토마스' 메트로 입사

- 이정희 前 부산일보 서울본부장 영입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3일자로 이정희 전 부산일보 서울본부장(사진)을 금융·증권부문 대기자(大記者·국장)로 영입했다. 이 국장은 인천 선인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일보에서 25년간 근무한 이후 지난 1월말 정년퇴임했다. 부산일보 경제부장, 서울본부장 겸 이사를 역임한 베테랑 기자다. 이 국장은 1943년 UPI통신에 입사해 50여 년간 기자로 활동한 미국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 헬렌 토마스 처럼, 20여년간 한결같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부문을 출입기자로 맹활약해 '한국의 헬렌 토마스'로 불린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는 "금융·증권부문 대기자 영입으로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그간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간 18주년을 맞이하는 메트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